

불교학계 논문 심사, 토론·전문성 결여

권오민·장재진 교수, 현행 심사 풍토 비판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제도가 생겨 나며 현행 학술지의 대부분의 글은 심사를 받는다.

한국불교학계의 20여 학술지도 매년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심사와 논평제도는 동료 전문가 집단의 평가라는 본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인 논박을 넘은 대립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불교학계 일각에서 논문심사 제도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권오민 경성대 교수와 장재진 동명대 교수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42호에서 불교학계 논문심사 문제를 지적했다.

권오민 교수는 '불교학 관련 논문심사 유감'의 글에서 "현행 학술지 심사는 원천적으로 토론이 봉쇄됐다. 이로 인해 심사가 마치 논문 지도교수와 같은 훈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논지가 실리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비판은 새로운 논문으로 제시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이 글에서 자신의 논문인 '알라야식 존재증명과 경량부'를 〈불교학보〉 70집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사례를 들었다. 권 교수는 "등재지 제도 이후 규격화된 논문에 논지마저 훼손하는 심사자의 훈계와 지시가 있었다. 게재를 위해 따르다면 그것이 무슨 논문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교과적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불교학계의 폐쇄적 권위주의를 버리고 논쟁을 통한 학문 발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진 교수도 '불교학계 논문심사의 문제점'에서 소통의 부족을 문제로 꼽았다. 장 교수는 "불교학계는 다른 분야 학회와 달리 투고자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 분야 다수의 인력풀을 소집해 공개토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연구자의 주관적 해석에 대한 경계는 심사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중재기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불교학계가 심사의 소통 부족이 전문성 결여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특히 게재를 위한 심

사 강행되는 풍토로 응용·비교·융복합 등에서 더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응용·비교·융복합 등 범주에서는 인력풀이 약하기에 이를 중재할 편집위의 역할이 더욱 세밀해야 한다. 그리고 '심사 청문회' 등 공식 절차가 규정으로 포함되는 등 본쟁 대응방법도 보다 구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름을 요구한 불교학계 학회 편집위원장은 "일정부분 공감한다. 전문가 풀 제도를 운영하고 동시에 심사자들이 사전에 기피자를 선정하는 제도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편집위원회의 심사자뿐만 아니라 투고자의 연구 결과도 보호

학술지 심사 토론 원천 봉쇄
"심사자, 지도교수 같은 훈계"
융복합 등 인력 없어 소통 '無'

불교 학술지, 등재 탈락 이후
심사과정 갈등 확대 전망돼

해야 한다. 현재 불교학계는 이런 본쟁 발생 시 편집위 내 재심의 과정이 있으며 다른 전공자들에게 묻고 있다. 심사 논증과정과 재심의 과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 중진학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제도상 젊은 학자들이 업적 평가에 들어가지 않는 비등재지에 중복게재도 피해야 하며 투고기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후보지에 불교학술지가 대거 탈락한 이후 평가 게재와 심사과정에 대한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열린단을 운영하는 허우성 불교평론 편집위원장은 "학계 전반에 논쟁이 활발히 이어지고 이를 통한 학문발전이 진행돼야 한다. 학자 개인이 학문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을 하고 공정성을 갖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남측 천태종과 북측 조선훈교도연맹은 11월 3일 개성 영통사 보광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南北불교 "통일보살 되자" 다짐

천태종·조불련, 3일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법회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복원한 개성 영통사가 복원 10주년을 맞았다. 남측 천태종(총무원장 춘광)과 북측 조선훈교도연맹(위원장 지성, 이하 조불련)은 11월 3일 개성 영통사 보광원서 '영통사 복원 10주년 기념 평화통일기원 남북합동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남측에서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종의회 부의장 무원·총무부장 월도 스님 등과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이지범 고려대장경연구소장 등 70여 명이, 북측에서는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강수원), 부위원장 연남 스

님과 차금철 서기장, 영통사 주지 해명·평양 광법사 주지 수덕 스님, 리현숙 전국신도회 부회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영통사 복원은 단순한 건축복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공존 번영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공간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새로운 10년의 유대를 이어가는 특별한 원력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측 조불련 위원장 지성 스님도 "북남이 힘을 합치면 못 해 낼 일이 없다"며 "영통사가 불법

이 넘쳐나는 도량이 되서 천태종도들의 성지순례도 계속 이어져 우리 모두 통일의 보살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천태종 종의회 부의장 무원 스님과 조불련 차금철 서기장은 함께 낭독한 공동발원문에서 "이 시대를 사는 남북 국민들이 통일 보살이 되는 소중한 순간이 되도록 지혜광명을 내려주소서"라고 부처님 전에 발원했다.

기념법회 후 춘광 스님은 직접 쓴 '상락아정(常樂我淨)' 글씨를 비롯해 소경 범종, (마하지관) 등을 지성 스님에게 전달했다. 무원 스님도 직접 쓴 지성 스님에게 '인화성사(人和成事)' 글씨를 지성 스님에게 선물했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 강남 총무원 시대 열리나

자승 스님, 3일 카페 바라밀 오픈식서 밝혀

조계종 중앙총무기관의 강남 이전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1월 3일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1층에서 개최한 카페 바라밀 오픈식에서 총무원 청사를 봉은사로 이전할 것을 밝혔다.

이날 자승 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본격화 되면 전

법회관 철거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런 경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전법회관에 들어선 단체들이 사용하고 중앙총무기관은 강남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총무원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와 함께 봉은사 인근의 토지 매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총본산성역화불사 총도감 지현 스님은 "총본산 성역화 불사가 추진되면 전법회관 내 단체와 불교신문사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오롯이 불교 신행과 문화 단체들의 공간으로 사용하려 한다. 이는 성역화 불사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봉은사 예식장이 내년도 완수가 이뤄질 것이다. 이후 인근에 추가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총무원 청사를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사찰 재정 확충하려면 재정 투명화가 우선”

불교미래사회, '신도 보시 및 기부 인식 조사' 발표

신도 900명 대상 설문
보시금 납부 의향 66.1%,
사용처에는 의구심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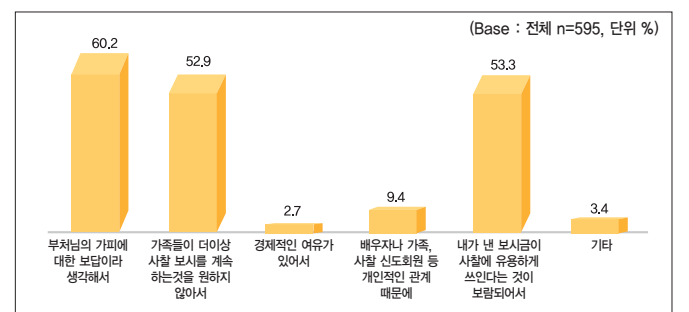
사찰 신도의 절반 이상이 사찰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보람돼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으며, 납부 의향이 없는 신도는 보시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없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부설 불교미래사회연구소(소장 가섭)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찰 신도의 보시 및 기부에 대한 인식 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내 사찰 13곳 신도 900여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

(52.9%), '배우자나 가족 사찰 신도회원 등 개인적 관계로'(9.4%),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2.7%)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시금 납부 의향이 없다고 말한 5.7%(51명) 가운데 15.7%가 사찰서 보시금을 적절히 사용하는지 확인 못 해서라고 답해 신도들이 재정 투명화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품고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 이유로는 '가족들이 더 이상의 보시를 원하지 않아'(11.8%), '가계에 부담돼'(5.9%), '지금까지의 보시금으로 충분하다 생각해'(2.0%) 등을 들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신도 2명 중 1명은 신도 교무금이 중단과 사찰 재정에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신도 교무금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결과에 잘 나타났다.

향후 보시금 납부 의향이 있는 이유



입식 조사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보시금을 한 번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는 신도 832명 중 방법으로는 83.1%가 불전함과 보시할 기부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인등 기도비(67.9%), 신도회비(46.3%), 교무금(23.3%) 순으로 조사돼 불전함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향후에도 계속 보시금을 납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률은 66.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25.1%, '의향이 없다'는 5.7%였다. 보시금을 납부하고 있는 신도 10명 중 6~7명이 계속 보시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시금 납부 이유(복수응답)는 '부처님 가피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해'(60.2%), '내가 낸 보시금이 사찰에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이 보람돼'(53.3%), '가족들의 평안 및 행복을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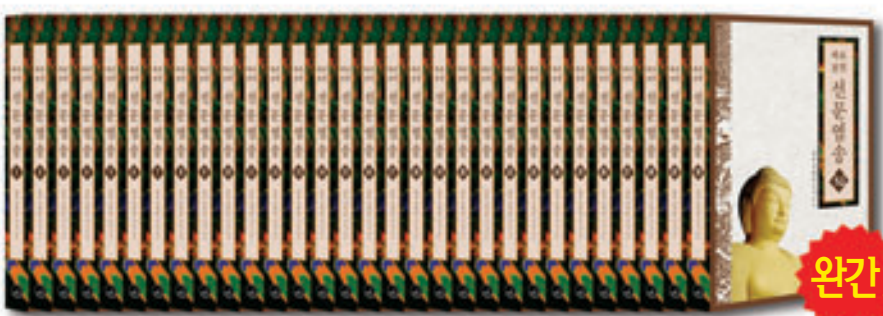
'조계종단 재정에 도움'(55.3%), '사찰 재정에 도움'(47.3%), '신도조직 활성화에 도움'(45.2%)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기부활동에 대한 인식도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7명으로 절대 다수로 조사돼 불전함이 아직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 결과에 대해 불교미래사회 연구소 소장 가섭스님은 "신도들이 사찰 교무금을 내는 것에는 많은 이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신도들은 역시 재정투명화를 이유로 꼽았다"며 "종단에서도 사찰 교무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명화 보시금이 사찰에 유용하게 쓰인다"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hyunbul.com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몽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공금한 33가지 3개국어판